

# 벤투호, 오늘 16강행 성패 걸린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

한국 축구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도전 시작

‘안와골절’ 손흥민 출전 여부 관심...황희찬도 햄스트링 불편

FIFA 랭킹 14위 우루과이, 수아레스·누네스 신구 조합 경계

한국 축구의 역대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16강 진출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첫 경기다.

과거 두 차례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은 모두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비기거나 지고선 16강에 진출한 적이 없다.

4강 신화를 썼던 2002 한일월드컵에선 폴란드와 조별리그 1차전을 2-0으로 승리했고,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뤘던 2010 남아공월드컵에선 그리스와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한 조에 속해 만만한 상대를 찾을 수 없지만 12년만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위해서 1차전 선전이 절실하다.

첫 상대 우루과이는 월드컵 우승 2회(1930년·1950년)에 빛나는 남미 전통의 강호다. 직전 2018 러시아월드컵에선 8강에 진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위로 한국(28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상대전적에서도 1승1무6패로 한국이 크게 뒤진다. 월드컵에선 두 차례 만나 모두 패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남아공월드컵 16강에서 한

국을 2-1로 누르며 8강행을 가로막았다. 이 대회에서 우루과이는 4강에 진출했다.

우루과이는 신구 조합이 돋보이는 팀이다. ‘황금세대’로 불린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 에딘손 카바니(알렌시아), 디에고 고딘(벨레스 사르스필드) 등 베테랑이 여전히 팀 내 핵심을 이룬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실질적 에이스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로드리고 벤타쿠르, 다윈 누네스(리버풀) 등 신예들의 발끝이 날카롭다.

특히 수아레스는 남아공월드컵 16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울렸던 인물이다. 우루과이의 간판 공격수인 그는 A매치 134경기에서 68골을 터뜨렸다.

리버풀(잉글랜드),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등 명문 클럽에서 뛰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수아레스는 또 리버풀에서 뛴 2013~201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1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지난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과 EPL 득점왕 출신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카바니 역시 A매치 133경기에서 58골을 기록한 베테랑 스트라이커다. 이번 시즌 EPL에 진출한 누네스는 수아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2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과 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스, 카바니를 이을 차세대 공격수로 꼽힌다. 데뷔 시즌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카타르 입성 이후 훈련 중 발목을 다쳤지만 출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한국은 100% 전력을 구축하기 어렵다.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이날 초 소속팀 경기 도중 안와골절 부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자신의 세 번째 월드컵 출전을 위해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투혼을 보여줬고, 특수 제작 마스크를 착용하며 팀을 이끌고 있으나 정상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듯하다. 훈련 중 마스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땀이 흐를수록 고쳐 쓰는 횟수도 많다.

벤투호 공격 조합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황희찬(울버햄튼)의 출격도 불투명하다. 왼쪽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우루과이전을 이틀 앞둔 상황임에도 팀 훈련 대신 실내에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전이 어려울 경우, 플랜B로 나상호(서울), 송민규(전북)가 후보로 거론된다.

그레도 이탈리아 세리에A를 대표하는 수비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센터백 김민재(나폴

리)의 존재는 든든하다.

또 벤투 감독의 신망이 두터운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안정적인 볼 컨트롤과 정확한 패스로 공격에서 활로를 뚫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선 두 차례 월드컵에서 부상 때문에 최종 엔트리 밖의 아픔을 맛봤던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도 부상에서 회복한 단계로 전해져 세계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다.

우루과이와 1차전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벤투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뉴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 英매체 “손흥민, 이번 월드컵 스타될 것”...출격 앞두고 기대 ↑

한국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 출신으로 현재 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카 리차즈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 토크10’ 팟캐스트에 출연해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 스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차즈는 조별리그를 뒤흔들 수 있는 다크호스 중 한 팀으로 한국을 꼽으며 손흥민을 주목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공격수”라고 손흥민을 언급한 리차즈는 “그라운드 어디에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토트넘처럼 역할을 하는 팀에서 완벽한 선수다. 이번 월드컵에서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국 매체 HITC도 리차즈의 의견에 동의했다.

HITC는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다”며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놀라운 선수단이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엔 손흥민뿐 아니라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도 버티고 있던 점도 빼놓지 않았다. 매체는 “김민재는 올 시즌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였고,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이강인(마요르카)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활약을 펼쳤다”고 적었다.

이달 초 경기 중 안와골절 부상을 입은 손흥민은 불굴의 의지로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다. 우루과이전을 3일 앞둔 지난 21일에는 훈련 중 가볍게 헤딩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H조 조별리그 1차전에 첫 출격할 예정이다.

뉴스

## 사우디, 승률 8.7% 뚫었다...美닐슨 “역대 월드컵 이변 1위”



그레이스노트가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 확률을 계산했다. (사진=그레이스노트 트위터 캡처)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루사일에서 아르헨티나를 2-1로 이겨 ‘루사일의 기적’을

이뤘다. 한 데이터 분석 업체는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이 8.7%였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의 이변 승리를 ‘역대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충격’으로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닐슨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는 랭킹 시스템, 팀의 강점, 장소, 역사 등을 고려한 식을 적용해 사우디

사우디 승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 통계로도 확인

2018 한국-독일전도 14.4%를 뚫는 이변 7위 기록

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은 8.7%였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승리가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이라는 걸 통계로도 확인한 것이다. 사우디는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 두 번째로 랭킹이 낮은 ‘최약체’로 평가됐던 반면 아르헨티나(3위)는 3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사우디의 뒤를 이어 그레이스노트는 ▲1950년 미국의 잉글랜드전 승리(1-0, 9.5%) ▲2010년 스위스의 스페인전 승리(1-0, 10.3%) ▲1982년 알제리의 서독전 승리(2-1, 13.2%) ▲2006년 가나의 체코전 승리(2-0, 13.9%)를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으로 평가했다.

한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는 경기도 역대 이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레이스노트는 한국이 독일을 꺾을 확률은 14.4%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과 손흥민이 연속골로 1938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켰다.

## “대~한민국” 붉은악마 뿜다...광화문 응원 조건부 허용

서울시, 자문회의서 조건부로 허용허가 276명 인력 투입 비상 대응체계 갖춰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증편·막차 연장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 F조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지난 2018년 6월 24일 새벽 서울 중구로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을 하던 시민들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자 기뻐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전이 가능해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악마’가 제출한 거리응원 광장 사용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자문단은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했다.

시는 야간시간대 안전 확보,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중로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결과 및 광화문광장자문단 자문결과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거리응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경찰, 소방 및 비상시 구급 대책 등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집중한다.

종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해 행사현장 순찰 및 비상상황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교통·안

전·구급 사량의 대응 및 안내, 인근 역사 안전 관리, 행사 전후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등의 인력 276명을 투입,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시민들이 집결하는 행사인만큼 경찰, 소방 협조를 통해 현장 인파 상황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예선전이 열리는 기간, 응원전에 나서는 시민들로 거리가 혼잡할 수 있어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한다. 또한 지하철 5호선도 광화문역의 승강장 혼잡수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거리응원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증편과 막차시간 연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3일간 광화문역 등 행사장 인근 4개 역사에 안전요원을 평소 대비 4배 이상 증원 배치(12명→53명)하고, 인원집중을 막기 위한 동선관리,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 등 역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 2차전에는 지하철 2·3·5호선을 자정~오전 1시, 상·하선 각 2회씩 총 12회 증회 운영(막차 시간은 종착역 도착기준 익일 01시로 평소와 동일)하며, 광화문 경유 46개 시내버스 노선의 막차시간을 광화문 출발 기준 0시30분으로 연장한다.

특히 오전 2시에 종료되는 3차전에는 지하철 2·3·5호선 막차 시간을 오전 3시(종착역 도착기준)까지 연장하고 오전 1~3시 상·하선 각 5회씩 총 30회 증회 운영, 심야버스 전 노선을 오전 2시~3시 집중배차(28회 증회 효과)할 계획이다.

거리응원전 당일 광화문 일대에서 공공자전거 및 개인행이동장치 반납·대여가 불가하며,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시·자치구가 합동으로 광화문 일대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운영 앱, 인근 주차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뉴스